

MERITZ

유통/화장품 Weekly



유통/화장품 Analyst 양지혜
02. 6098-6667
jihye.yang@meritz.co.kr

1. 전주 동향

유통

12월 첫째주 유통업종 주가는 전체 시장 대비 하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함. 11월 소비심리 위축과 함께 전반적으로 유통업체들의 실적 둔화가 예상되면서 경기민감주 대비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하였음. 롯데쇼핑은 시내 면세점 추가 입찰과 함께 호텔롯데 상장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하였음. 이마트가 11월 실적을 발표하였으며 할인점 기준점성장률은 -4.2%로 부진하였으나 신사업인 온라인몰과 트레이더스가 각각 34.8%, 30.2% 신장하였음. 다만 신사업의 수익성이 기존 할인점 사업 대비 크게 낮아 12월 실적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음

화장품 (생활소비재)

12월 첫째주 화장품업종 주가는 전체 시장 수익률 대비 소폭 상회하였음. 최근 화장품업종 주가 하락에는 금리인상, 환율 변동성, 그리고 중국 관련 정치적 리스크 등이 주가에 심리적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였는데 이러한 외부 변수들이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반등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코스맥스, 한국콜마, 연우 등 화장품 중소형주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음. 일단 정치적 상황에 대해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 실질적인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약화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됨

2. 금주 전망

유통

최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주요 심리 지수가 하락하고 소매 판매액이 둔화되고 있어 실질적인 경기 회복이 소비 전반에 반영될 때까지 유통업종 보수적 접근 필요. 불황기 소비 패턴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가격보다 가치에 대한 민감도 강화, 따라서 무엇보다 소비 패턴의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할 시점. 한편 12월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입찰이 예정대로 진행될 계획 (17일)이며 관련 업체들의 주가 향방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 이번 면세 입찰에서 주가 영향이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는 롯데쇼핑이라고 판단됨. 단기적으로 실적이 안정적이면서 배당 여력이 높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 요망

화장품 (생활소비재)

중국 인바운드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상당수 선반영됨. 화장품 수출은 7월 37.9%, 8월 58.8%, 9월 70.9%, 10월 39.5% 꾸준히 성장하였으며 11월 20%대로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에서 여전히 유일한 두자리수 성장. 최근 중국뿐만 아니라 미주, 유럽 등으로 수출 지역 다변화. 다만 4분기 시장 컨센서스가 다소 높을 것으로 우려되지만 2017년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이미 크게 낮은 상황. 글로벌 화장품업체 (12MF 평균 PER 27배) 대비 할인된 대형 화장품 업체들과 2017년 신성장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업체들 (코스맥스, 한국콜마홀딩스, 뉴트리바이오텍, 대봉엘에스 등) 중심으로 점진적인 매수를 고려할 시점

3. 관심종목 & 종목 코멘트

유통

관심종목

BGF리테일 (027410):

구조적인 소비 트렌드 변화와 즉석식품 등 상품력 강화에 따른 자체적인 성장성이 부각되고 실적 또한 양호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전망. 다양한 서비스 상품 개발로 고객 매장 방문빈도 또한 더욱 높이고 있음

롯데하이마트 (071840):

2016년말부터 신규 분야에 따른 입주시기 집중. 대형 가전제품 판매에 긍정적일 전망. 중장기 상품력 강화 꾸준히 진행 중, 온라인 및 신채널 확장 가능성 잠재. 과도한 저평가 해소 전망

종목 코멘트 (탐방)

화장품 (생활소비재)

관심종목

아모레G (002790)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등 비상장 자회사들의 높은 성장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매출액 17% 성장 전망. 뷰티산업 확장에 따른 전문 헤어케어, 건강기능식품 및 메디컬 뷰티 시장에서도 의미있는 성과 기대

LG생활건강 (051900):

2017년 면세 채널 성장을 둔화에도 프레스티지 제품 비중 확대로 영업이익률 개선 지속될 전망. 최근 생활용품 관련 글로벌 파트너십 및 해외 성장 전략을 가시화하고 있음. 현 주가는 역사적 최하단 수준

종목 코멘트 (탐방)

뉴트리바이오텍 (222040)

- 4Q동향: 분기 특성상 고객사들의 마감 시즌 재고 조정 이슈로 3Q보다 절대 매출액은 다소 작을 수 있겠지만 연간 매출액 1,200억원 (+60% YOY), 영업이익률 17% 수준에 충분히 부합할 전망
- 미국 2공장 완공, 2017년 1Q 시가동 예상. 호주공장 1~2월 완공 예정. 2016년 capa 4,100억원까지 확장. 2017년 추가 capa 1,500억원 증설 계획
- 2017년에도 전년 대비 40~50%의 고성장이 지속될 전망. 수출 비중 확대로 국내법인의 수익성은 개선되고 해외법인은 초기 투자로 손실이 예상됨

4. 주요 뉴스

유통

200만 촛불에 백화점은 올상...매출 11개월래 최대폭 감소: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2월 경제동향(그린북)'에 따르면 11월 백화점 매출액은 지난해에 비해 1.6% 감소, 10월 5.6% 증가에서 하락 반전한 것으로 특히 백화점 매출액은 지난해 12월(-3.8%)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 할인점 매출액 또한 3.9% 줄어 10월의 4.8% 증가세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섬. 그린북은 현재 경기에 대해 "코리아 세일페스타 등 정책효과로 소비가 반등했지만 생산 및 투자 전반이 부진하며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힘 (서울경제, 12/9)

시내면세점 사업자 17일 발표: 5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번 시내면세점 사업자 특허 심사를 17일 끝내고 결과도 당일 발표하기로 확정.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기관보고 자료에서 "면세점 사업자 특허수수로 인상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면세점 업체들이 사업권(특허)의 대가로 관세청에 내는 특허수수료는 연말까지 최대 20배 인상될 것 (한국경제, 12/6)

롯데, 확 바뀐 해외전략...L7 간판만 들고 뉴욕서 호텔사업: 호텔롯데가 4성급 부티크 호텔 L7의 첫 해외 지점을 미국 뉴욕에 오픈할 예정. 지난 1월 L7 1호점인 명동점을 연 뒤 약 1년 만의 해외 진출. 7일 호텔롯데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문을 여는 L7은 위탁경영 형태로 운영. 호텔 측은 "위탁경영 프랜차이즈 형태로 L7을 뉴욕에 개장하기로 하고 세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힘. 호텔롯데가 해외 진출 때 위탁경영 방식을 확대하는 것은 직접 투자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 (한국경제, 12/8)

롯데마트 은평점 오픈...서북부 대표 마트 꿈꾼다: 롯데마트는 8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지하 1에서 지상 2층까지 3개 층에 9385㎡ (약 2844평) 규모의 롯데마트 은평점을 오픈. 은평구는 거주 인구가 50만명이 넘고 삼송·지축·원흥 지구 등 신규 개발지구로 인구 유입이 지속되고 있지만, 쇼핑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었음. 이에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 지역에 대규모 쇼핑몰 오픈을 추진중에 있음 (매일경제, 12/8)

화장품 (생활소비재)

'K뷰티' 수출도 순항, 무역흑자 효자산업으로 우뚝: 만년 무역적자 화장품, 2013년 이후 흑자산업 대변신... 올해 무역흑자 20억달러 넘어설 듯.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화장품 수출액은 28억2522만달러로 지난해 수출 실적(24억4958만달러)을 넘어섰음. 올해 해외에서 들어온 화장품 수입액은 9억1967만달러로 19억달러가 넘는 무역흑자를 달성. 주력시장인 아시아 뿐만 아니라 미국·러시아 등으로 수출이 증가해 올해 사상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가 2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 (머니투데이, 12/5)

광군제 때 1000만장 팔린 한국 마스크팩...AHC, 리더스, 제이준 '톱3': 최근 알리바바그룹 온라인쇼핑몰 티몰이 발표한 판매액 순위에 따르면 한국산 마스크팩 톱3 브랜드는 A.H.C, 리더스코스메틱, 제이준 순. 국산 톱3 마스크팩 브랜드의 공통점은 피부과 병원이나 에스테틱과 연계해 유커들의 신뢰를 얻었다는 것. 특히 A.H.C '하이드라 수더 마스크'는 광군제 때 65만장이 팔림. A.H.C를 보유한 커버코리아는 이미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매출액 1,500억을 넘김 (매일경제, 12/8)

아리따움 'O2O플랫폼 적용 실시간 배송': 아모레퍼시픽의 뷰티 편집숍 아리따움은 업계 최초로 O2O플랫폼을 적용한 실시간 배송 서비스인 '플라잉&픽미'를 이달 시범 운영 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5일 밝힘. 플라잉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구입한 제품을 1~3시간 내 매장 방문 없이 어디서든 받아볼 수 있는 제도이며, 픽미 서비스는 온라인 주문 후 원하는 매장에서 제품을 가져가는 서비스로, 온라인 몰에서 제품을 주문한 후 매장에서 바로 수령할 수 있음 (서울경제, 12/6)

'아마존 Go'...계산대 없다, 줄도 안선다: 아마존은 5일(현지시간) 계산대를 없앤 최초의 시형 온·오프라인 통합 스토어 아마존고를 내년 초 시애틀에서부터 선보인다고 밝힘. 현재는 아마존 직원을 대상으로 본사가 있는 시애틀에서 시범 서비스 중이지만, 내년 초부터 2020년까지 약 2000개 매장(매년 200개 이상)을 미국 전역에서 오픈할 예정. 상점에 내장된 컴퓨터 시각 센서와 생체인식 센서, 딥러닝 기술 등 AI 기술을 이용해 전자태그(RFID) 같은 센서 없이 정확히 소비자의 쇼핑 리스트를 알아내는 '저스트 워크아웃' 기술을 이용 (매일경제, 12/7)

현대백화점그룹, SK네트웍스 패션부문 품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패션 전문 계열사인 한성을 통해 SK네트웍스 패션사업 부문 전체에 대한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힘. 인수금액은 3,261억원이며 고용은 100% 승계. 한성과 SK네트웍스 패션 부문을 합칠 경우 올해 약 1조 35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돼, 이랜드·삼성물산 패션 부문·LF와 더불어 현대백화점그룹이 국내 패션업계 '빅4'로 도약하게 됨. 올해 한성은 75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며, SK네트웍스 패션 부문은 약 6000억원의 매출 달성을 예상 (매일경제, 12/9)

롯데하이마트 가전유통계 최초 '편의점 픽업 서비스': 롯데하이마트가 12월부터 가전유통업계 최초로 '편의점 픽업 서비스'를 선보임. 하이마트쇼핑몰에서 '스마트픽' 서비스를 이용해 상품을 구매하면 하이마트 매장뿐 아니라 전국 4,300여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24시간 중 자유롭게 받아갈 수 있음. 롯데는 우선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에 있는 100여개 하이마트 매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내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 (경향신문, 12/6)

코스맥스 '수출비중 50%로': 코스맥스가 매출의 28% 수준인 수출 비중을 2020년까지 50%로 높이기로 함.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로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계획. 수출이 100여개국으로 확대된 데다 화장품 사용 인구가 늘어나는 동남아시아 등 신흥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 (한국경제, 12/6)

코스맥스, 美 존슨앤존슨 손잡았다...신제품 100여종 공급: 월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TF 구성해 제품 개발...내년 상반기 뉴트로지나·아비노 등 신제품 출시, 코스맥스는 2018년까지 존슨앤존슨의 화장품 브랜드인 '뉴트로지나', '아비노', '다바오' 등에 기초 화장품 100여 종을 개발해 공급할 계획. 개발 중인 신제품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와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에서 판매될 예정 (머니투데이, 12/9)

토니모리, 유럽 세포라에 색조라인 확대 판매: 토니모리는 유럽 세포라 매장에 내년부터 색조라인을 추가 입점한다고 5일 밝혔음. 토니모리는 이번 라인 확대에 대해 지난 5월 세포라 입점 후 현지 소비자들 높은 관심을 보인데 힘입어 결정됐다고 설명. 추가 입점을 기념해 독특하고 재치있는 패키지의 색조 제품을 선보임. '팬더의 꿈' 메이크업 라인과 미니 사이즈의 '헬로바니퍼퓸바' 5종류 등 국내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었던 제품들 중심으로 라인업을 구성함 (매일경제, 12/6)

5. 주요종목 Valuation

업종별	기업명	종목코드	주가 (원)	시가총액 (백만원)	PER(X)		PBR(X)		ROE(%)	
					2016C	2017C	2016C	2017C	2016C	2017C
유통	롯데쇼핑	A023530	224,000	7,053,960	22.8	17.5	0.4	0.4	1.9	2.5
	현대백화점	A069960	109,500	2,562,567	9.0	8.1	0.7	0.6	8.0	8.2
	신세계	A004170	180,500	1,777,055	6.3	10.1	0.5	0.5	8.9	5.5
	CJ오쇼핑	A035760	160,100	995,104	11.8	10.0	1.3	1.2	11.8	12.7
	GS홈쇼핑	A028150	176,900	1,160,906	11.3	11.2	1.1	1.0	10.0	10.0
	현대홈쇼핑	A057050	109,000	1,308,000	10.9	9.7	1.0	0.9	9.4	9.8
	엔에스쇼핑	A138250	146,000	491,962	7.6	7.7	1.2	1.1	17.9	15.2
	이마트	A139480	194,500	5,421,847	15.9	13.9	0.7	0.7	4.7	5.2
	GS리테일	A007070	47,200	3,634,400	17.1	17.8	1.8	1.7	12.9	10.3
	BGF리테일	A027410	87,400	2,165,244	24.7	21.1	4.7	4.0	20.7	20.6
	롯데하이마트	A071840	45,250	1,068,249	9.5	8.6	0.6	0.5	6.2	6.4
	아이마켓코리아	A122900	10,300	370,216	12.1	10.8	0.9	0.9	8.0	8.7
	호텔신라	A008770	50,300	1,974,180	50.3	21.6	2.5	2.3	5.5	11.5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A027390	35,050	210,305	(11.2)	841.2	0.8	0.9	(6.8)	1.3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A090430	318,500	18,619,029	32.5	26.2	5.6	4.7	18.7	19.7
	아모레G	A002790	129,500	10,332,932	31.2	25.1	3.8	3.3	13.6	14.3
	LG생활건강	A051900	846,000	13,212,995	24.2	21.7	5.5	4.5	26.8	24.2
	코스맥스	A192820	115,000	1,034,944	32.5	22.8	9.4	4.6	28.8	29.2
	한국콜마	A161890	70,800	1,493,891	27.8	21.7	5.5	4.5	22.0	22.8
	연우	A115960	38,350	475,463	21.5	17.5	2.6	2.3	13.0	14.1
	대봉엘에스	A078140	11,900	131,930	14.0	12.1	2.1	1.8	15.6	15.5
	바이오랜드	A052260	17,300	259,500	22.6	17.0	2.0	1.8	10.0	11.2
	에이블씨엔씨	A078520	19,950	306,805	14.6	12.1	1.5	1.4	10.8	11.9
	토니모리	A214420	21,900	386,316	22.7	20.1	3.0	2.7	13.8	14.3
생활소비재	코웨이	A021240	89,000	6,797,866	27.6	18.3	5.1	4.5	19.9	27.4
	쿠쿠전자	A192400	130,500	1,279,338	16.0	13.9	1.9	1.7	14.9	15.2
	뉴트리바이오텍	A222040	56,100	578,615	33.9	20.5	7.1	5.3	23.6	30.4
	콜마비엔에이치	A200130	18,300	540,647	17.0	16.8	4.1	3.4	27.9	21.5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6. 주요 해외 업체 Valuation

업종별	기업명	종목코드	주가 (각국통화)	시가총액 (백만달러)	PER(X)		PBR(X)		ROE(%)	
					2016C	2017C	2016C	2017C	2016C	2017C
유통	노스트롬	JWN US	61	10,531	20.5	19.2	11.5	10.8	57.5	77.7
	월마트	WMT US	70	215,369	16.2	16.2	2.7	2.6	17.0	16.9
	이베이	EBAY US	30	33,504	15.9	14.4	4.7	4.2	30.5	28.9
	세븐 & 아이홀딩스	3382 JP	4,357	33,512	36.9	18.5	1.6	1.5	4.2	8.5
화장품	로레알	OR FP	167	98,942	26.0	24.2	3.8	3.5	14.7	15.0
	에스티로더	EL US	80	29,209	23.3	20.9	10.0	9.8	37.3	50.2
	시세이도	4911 JP	2,854	9,900	36.5	34.7	2.8	2.6	8.1	7.6
	상해자화	600315 CH	27	2,672	41.4	33.9	3.2	3.0	7.2	8.4
생활소비재	패스트리테일링	9983 JP	42,590	39,179	40.8	35.9	6.3	5.6	17.1	17.4
	나이키	NKE US	52	86,136	21.8	19.3	6.9	3.2	32.0	34.2
	LVMH	MC FP	176	94,118	22.1	20.3	3.3	3.1	15.6	15.6
	조지루시	7965 JP	1,471	926	14.2	11.4	1.6	1.4	11.3	13.0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7. 주요 종목 기간별 수익률

업종별	기업명	Price Change(%)						Relative to market(%)					
		1W	1M	3M	6M	12M	YTD	1W	1M	3M	6M	12M	YTD
유통	롯데쇼핑	6.4	(2.8)	11.4	(1.1)	(3.2)	(3.7)	3.7	(6.2)	12.1	(1.1)	(7.2)	(6.9)
	현대백화점	0.5	(7.6)	(7.2)	(17.4)	(11.0)	(13.4)	(2.3)	(11.0)	(6.6)	(17.4)	(14.9)	(16.7)
	신세계	2.6	(5.5)	(8.1)	(11.3)	(25.0)	(21.5)	(0.2)	(8.9)	(7.5)	(11.3)	(28.9)	(24.8)
	CJ오쇼핑	0.0	0.4	1.1	(19.1)	(13.6)	(16.1)	(2.7)	(3.0)	1.8	(19.2)	(17.5)	(19.3)
	GS홈쇼핑	0.1	2.6	9.7	(4.6)	5.9	5.9	(2.6)	(0.8)	10.3	(4.7)	2.0	2.7
	현대홈쇼핑	0.5	(3.5)	(11.4)	(21.6)	(6.0)	(5.6)	(2.3)	(6.9)	(10.7)	(21.6)	(10.0)	(8.9)
	엔에스쇼핑	(4.3)	(7.3)	(10.4)	(12.1)	(21.7)	(21.3)	(7.0)	(10.7)	(9.8)	(12.1)	(25.6)	(24.5)
	이마트	2.4	9.6	24.7	9.6	(1.0)	2.9	(0.4)	6.2	25.3	9.6	(4.9)	(0.3)
	GS리테일	(0.5)	(4.3)	1.6	(11.6)	(6.7)	(12.3)	(3.3)	(7.7)	2.3	(11.6)	(10.6)	(15.5)
	BGF리테일	(3.7)	(4.0)	(5.1)	(19.3)	2.8	1.9	(6.5)	(7.4)	(4.4)	(19.3)	(1.2)	(1.4)
	롯데하이마트	(1.8)	5.6	3.8	(13.0)	(24.3)	(23.3)	(4.6)	2.2	4.4	(13.0)	(28.3)	(26.5)
	아이마켓코리아	0.0	(9.3)	(19.8)	(24.3)	(61.5)	(59.3)	(2.7)	(12.6)	(19.2)	(24.3)	(65.4)	(62.5)
	호텔신라	(0.2)	(2.3)	(22.6)	(23.0)	(41.9)	(34.9)	(2.9)	(5.7)	(22.0)	(23.0)	(45.8)	(38.2)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2.3	(4.4)	(33.2)	(37.0)	(65.0)	(64.4)	(0.4)	(7.8)	(32.6)	(37.0)	(68.9)	(67.7)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3.6	(12.0)	(18.3)	(27.0)	(22.1)	(23.2)	0.8	(15.4)	(17.7)	(27.0)	(26.1)
아모레G		6.2	(15.1)	(15.1)	(23.6)	(14.0)	(12.5)	3.4	(18.5)	(14.4)	(23.6)	(17.9)	(15.7)
LG생활건강		5.5	(2.5)	(13.6)	(23.2)	(15.4)	(19.4)	2.8	(5.9)	(12.9)	(23.3)	(19.3)	(22.7)
코스맥스		12.8	(4.6)	(20.3)	(29.6)	(35.0)	(35.9)	10.0	(8.0)	(19.7)	(29.6)	(38.9)	(39.1)
한국콜마		14.2	(9.5)	(20.8)	(29.1)	(22.6)	(25.4)	11.5	(12.9)	(20.2)	(29.2)	(26.5)	(28.6)
연우		15.5	(9.6)	(6.1)	(14.6)	10.2	(5.8)	12.8	(12.9)	(5.5)	(14.6)	6.3	(9.0)
대봉엘에스		3.9	2.6	(19.3)	(19.3)	26.3	19.2	1.2	(0.8)	(18.7)	(19.4)	22.4	16.0
바이오랜드		3.6	(6.0)	(15.2)	(22.4)	(28.7)	(37.4)	0.9	(9.4)	(14.6)	(22.5)	(32.6)	(40.7)
에이블씨엔씨		2.1	(3.4)	(16.2)	(47.5)	(3.4)	(14.7)	(0.7)	(6.8)	(15.5)	(47.5)	(7.3)	(18.0)
토니모리		0.9	(12.4)	(29.4)	(30.3)	(18.3)	(13.2)	(1.8)	(15.8)	(28.7)	(30.3)	(22.2)	(16.4)
생활소비재		코웨이	4.6	(4.9)	3.9	(18.4)	6.3	5.8	1.8	(8.3)	4.5	(18.4)	2.4
	쿠쿠전자	(2.3)	4.8	(4.7)	(22.3)	(42.3)	(43.1)	(5.0)	1.4	(4.1)	(22.4)	(46.2)	(46.4)
	뉴트리바이오텍	6.9	(18.5)	(5.4)	(31.0)	N/A	41.5	4.1	(21.9)	(4.8)	(31.0)	N/A	38.3
	클라비엔에이치	16.6	(16.4)	(39.1)	(53.4)	(44.7)	(52.4)	13.8	(19.8)	(38.5)	(53.5)	(48.6)	(55.6)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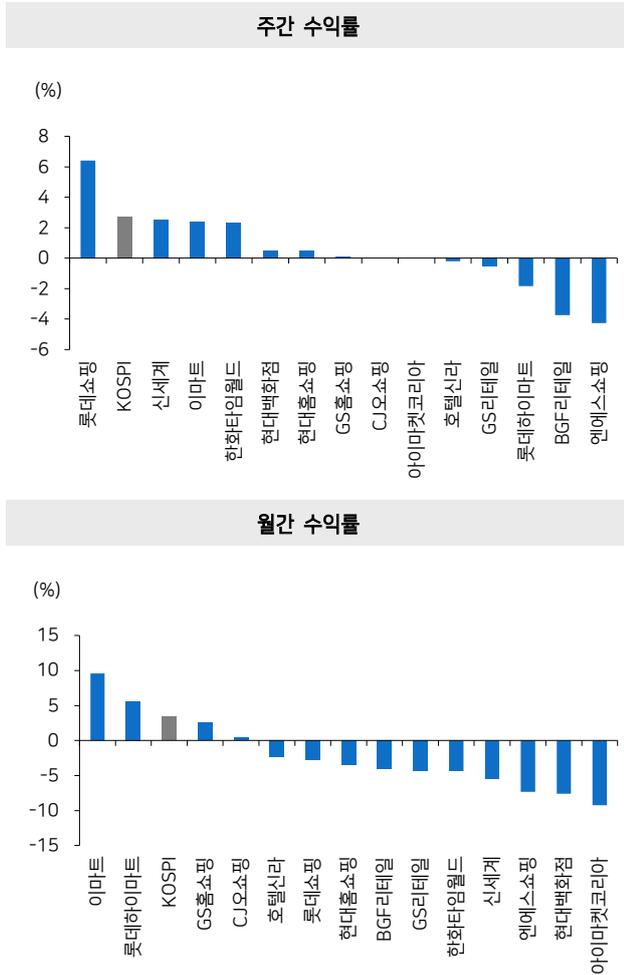
8. 해외 주요 업체 기간별 수익률

업종별	기업명	Price Change(%)						Relative to market(%)					
		1W	1M	3M	6M	12M	YTD	1W	1M	3M	6M	12M	YTD
유통	노스트롬	7.4	3.5	22.2	56.3	9.6	22.0	4.4	(0.9)	17.6	48.5	(2.7)	11.4
	월마트	(1.1)	(1.6)	(0.3)	(1.5)	18.1	14.3	(4.2)	(6.0)	(5.0)	(9.3)	5.8	3.8
	이베이	5.5	4.6	(6.0)	24.5	7.2	9.1	2.4	0.3	(10.7)	16.7	(5.1)	(1.5)
	세븐 & 아이홀딩스	1.1	2.7	(2.3)	(5.3)	(19.9)	(21.4)	(2.0)	(6.7)	(16.2)	(19.7)	(18.7)	(21.2)
화장품	로레알	5.3	6.4	0.0	2.3	8.3	7.7	0.1	0.3	(7.3)	(8.3)	3.5	4.9
	에스티로더	5.1	1.7	(9.0)	(12.9)	(5.7)	(9.5)	2.0	(2.7)	(13.6)	(20.7)	(18.0)	(20.0)
	시세이도	(1.5)	2.8	5.8	1.2	7.3	12.9	(4.6)	(6.5)	(8.1)	(13.2)	8.6	13.0
	상해자화	(0.8)	(1.5)	(7.6)	0.1	(29.9)	(30.5)	(0.5)	(2.6)	(14.6)	(10.3)	(24.0)	(21.9)
생활소비재	패스트리테일링	4.7	13.3	17.2	42.8	(7.3)	(0.1)	1.7	3.9	3.3	28.4	(6.1)	0.1
	나이키	2.5	1.9	(6.5)	(6.2)	(18.1)	(17.2)	(0.6)	(2.5)	(11.2)	(13.9)	(30.4)	(27.8)
	LVMH	4.1	8.7	15.7	23.4	21.5	21.5	(1.1)	2.6	8.4	12.8	16.8	18.8
	조지루시	0.5	13.1	(11.7)	(25.6)	(21.0)	(15.0)	(2.5)	3.7	(25.6)	(40.1)	(19.7)	(14.8)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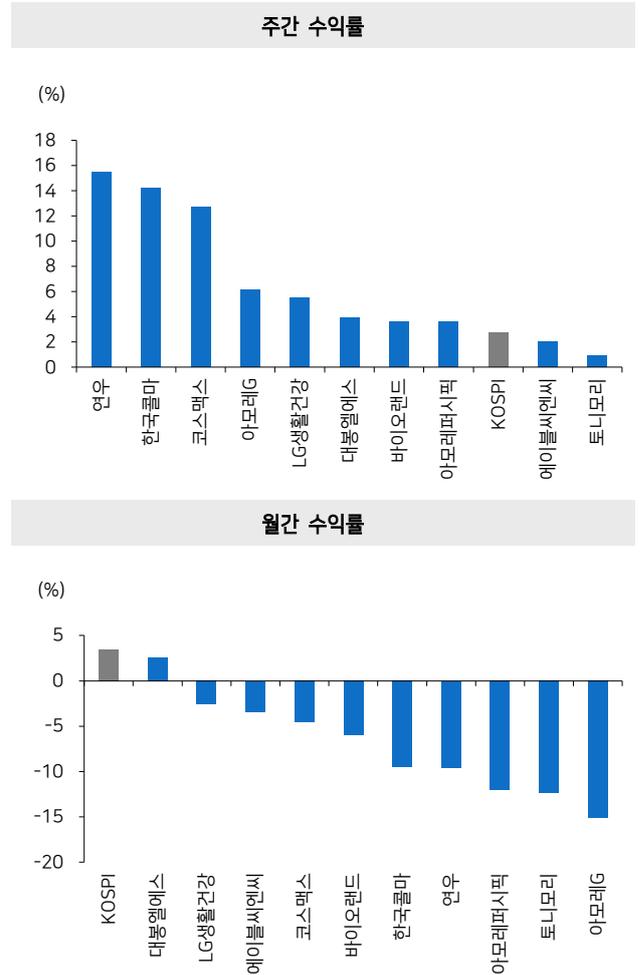
9. 주간/월간 수익률

유통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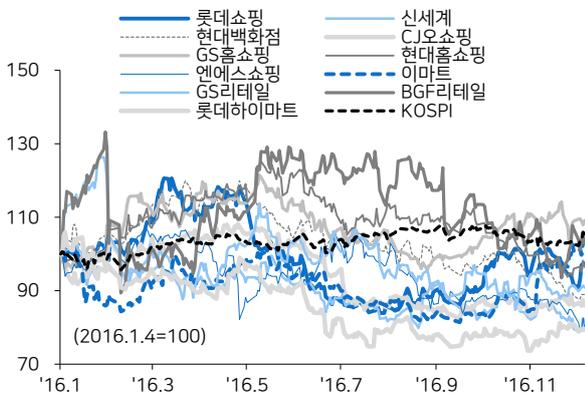
화장품 (생활소비재)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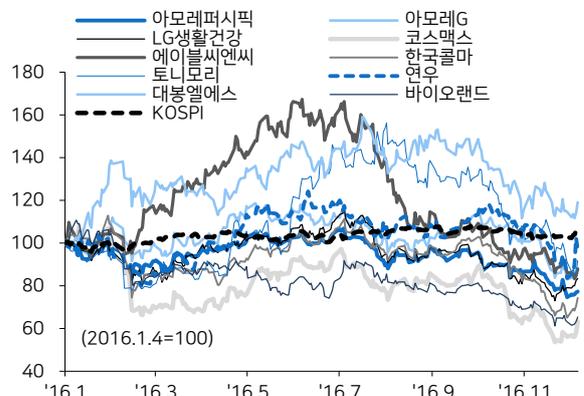
10. 주가 추이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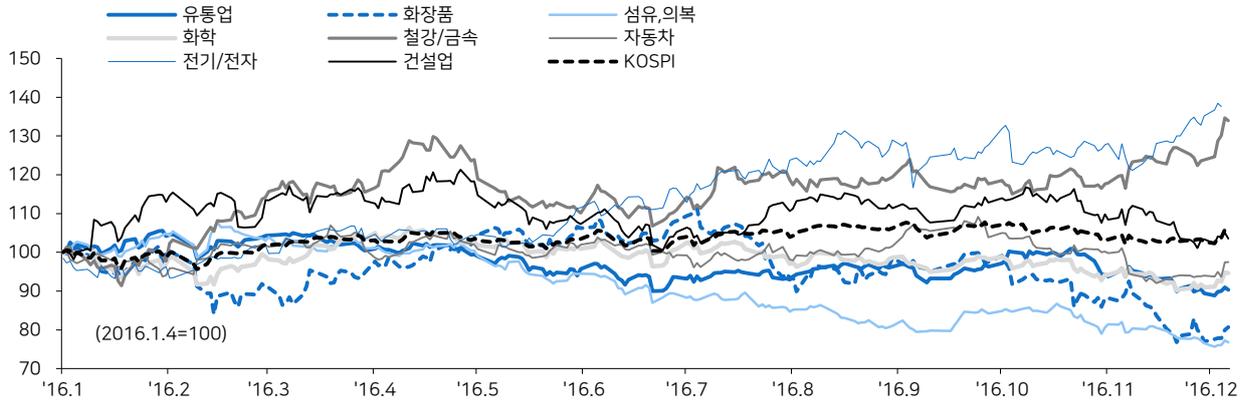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화장품 (생활소비재)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11. 업종별 지수 추이



자료: Quantwise, 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6년 12월 1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6년 12월 1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6년 12월 1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양지혜)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2016년 11월 7일부터 기준 변경 시행)

기업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증가대비 4등급	Buy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20% 이상 Trading Buy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5% 이상 ~ +20% 미만 Hold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20% 이상 ~ +5% 미만 Sell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20% 미만
산업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 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
추천기준일 시장지수대비 3등급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투자의견 비율

투자의견	비율
매수	87.4%
중립	12.6%
매도	0%

201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